

##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하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9일 고용복지+(플러스)공동교육관에서 하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번 하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지난 6월 김제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상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안내, 인사·노무 관련 실무업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의 과정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 16시간 일정으로 운영되었다.

김제시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2019년 김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을 통해 총 37명의 교육수료자 배출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카데미 교육수료자들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전환으로 이어져 김제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중심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보건소, 시민건강대학 수료식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29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생 45명과 관련 공무원 및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제시에서는 '함께하는 복지'라는 시정지표 하에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2011년부터 시민건강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시민건강대학은 '성공적 노화 프로젝트Ⅱ'라는 주제로, 9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실버건강체조, 전통놀이, 요리경연대회 등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사모에 학사복은 입은 어르신들은 지난 12주 동안 학우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펴올리며 서로 안아주고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정들었던 학우들과 헤어져야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노후를 보람되게 보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며,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저출산 극복 민·관 업무협약

김제시-김제하나새마을금고  
'생애 첫 통장 개설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김제하나새마을금고(이사장 박종권)는 지난 29일 지역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생축하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사업(이하 출생축하 통장 개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생축하 통장 개설사업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도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도 사업주진을 위해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

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 대응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태어나 부 또는 모와 김제에 주민등록이 된 출생아의 명의로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축하금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올해 말인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

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김제하나새마을금고의 참여를 시작으로 김제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8월 7일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관, 기업, 단체와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자투리땅, 소공원으로 '변신'

봉동 구미마을 유휴공간  
자투리땅 활용 농산촌 가꾸기

완주군이 2019년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으로 봉동 구미마을에 가로수와 소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의 2019년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 것으로 마을의 유휴공간과 자투리땅을 활용해 마을 경관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완주군은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구미마을 유휴공간과 자투리땅에 소나무, 배롱나무 등 수고 2~3m

이상의 큰나무와 납작, 은목서, 광광나무 등의 관목류 수목을 식재했다. 또한, 마을 진입로에는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특히 소나무는 완주군의 나무 은행을 사용해 예산절감까지 꾀했다.

김종년 구미마을 이장은 "유휴지와 자투리땅이 생기를 얻어 주민 모두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통해 이를다운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수목을 식재해 마을 경관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당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촌 마을'로 만든다는 목적이 있다"며 "이 뜻에 부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봉동 구미마을에 가로수와 소공원 조성했다.

## 완주군 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예방 캠페인

완주군이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완주군 보건소는 지난 28일 관내 전통시장과 우석대학교 등에서 주민 및 청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성별·에이즈 예방은 올바른 콘돔 사용'을 주제로 실시한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리플릿과 콘돔 등을 배부하고 무료 익명검사 안내 등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식사와 약수, 포옹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대부분(99%) 성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단지

하나의 질병일 뿐이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즈에 대한 익명검사 및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 (063-290-3048) 또는 에이즈상담 지원센터(1599-810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보건소는 지난 28일 관내 전통시장과 우석대학교 등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 시티투어와 함께하는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 김제시, 고3수험생 대상

지난 29일을 끝으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와 연계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을 4회에 걸쳐 추진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탐방에 김제여고와 덕암고 고3 수험생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속의 가치의 소중함과 역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내고장 문화 바로알기 및 선조들의 열과 지혜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제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주요 탐방코스인 아리랑문화마을을 통하여 조정래의 작품 '아리랑'과 작가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라 잃은 설움과 치욕, 민족의 고난

과 애환 그리고 일제에 맞서 독립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사의 이야기를 문화해설사를 통해 생생하게 들어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애국심을 강하게 들게 했고, 조선 말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조성된 백산면 부거리 응기마을을 둘러보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응기마을의 문화재로의 의미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거리옹기장(안시성)으로부터 전통 응기마을 이야기를 듣고 한민족의 정서와 가장 많이 닮은 응기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전통적 가치의 전승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역사를 흥미롭게 배우고, 전통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상들을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경로당에서 국화빵을 나누며 복지 서비스를 홍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고산면, 국화빵으로 주민 소통

## 완주군, 주민 애로사항 청취…복지사각지대 발굴

완주군 고산면(면장 전진엽)이 국화빵을 매개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며 소통복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고산면에 따르면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경로당으로 향한다.

'소통 국화빵 나들이'로 명명한 행사는 경로당에서 국화빵을 나누며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와 연계해 분리수거와 비점오염관리, 농업폐기물관리요령 등 농한기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한다.

특히, 행복나눔봉사단의 수지침봉사활동은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도 국화빵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소한 애로사항부터 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전진엽 면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모두 답변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주민센터에 처리토록 지시하고 있다"며 "추운 겨울철 국화빵이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